

# 삼성전자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6K 게이밍 모니터 공개

내달 CES 2026서 무안경 3D 방식 등 신제품 5종 선봬

세계 최초 1040Hz 초고주사율 구현…표현력 등 극대화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초고해상도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진행되는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행사에서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신제품은 세계 최초 6K 초고해상도를 지원하는 32형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G9(G90XH)’, 게이밍 모니터 최초 6K 초고해상도를 지원하는 32형 ‘오디세이 G8(G80HS)’, 5K 초고해상도에 최대 18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27형 ‘오디세이 G8(G80HF)’, 240Hz 주사율과 300니트 밝기의 QD OLED 모니터

32형 ‘오디세이 OLED G8(G80SH)’, 세계 최초로 듀얼 모드 기반으로 최대 1,040Hz 주사율을 구현한 27형 ‘오디세이 G6(G60H)’이다.

먼저 오디세이 3D G9(G90XH), 오디세이 G8(G80HS), 오디세이 G8(G80HF) 등 3종은 6K(6,144x3,456)와 5K(5,120x2,880) 초고해상도를 갖춰 그래픽 표현력과 시각적 몰입감을 대폭 강화했다.

‘오디세이 3D G9’은 무안경 3D 방식에 6K 해상도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다. 전작 대비 약 40% 더 커진 32형 크기, 게임마다 최적의 3D 입체감을 조절하는 3D 설정 가능, 최대 165Hz 고주사율, 1ms(GtG) 응답속도, 고주사율 듀얼 모드(3K·330Hz)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진행되는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행사에서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초고해상도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5종을 선보인다.

HZ 기능을 지원한다.

‘오디세이 OLED G8’은 32형 크기로 QD OLED 패널 기반 4K(3,840x2,160) 해상도와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27형 크기의 오디세이 G8은 5K 초고해상도에 180Hz 주사율을 제공하고, 고주사율 모드(QHD·360Hz) 기능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초고주사율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움직임이 빠른 e스포츠·고성능 게임 환경에 적합한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기술을 선도한다.

‘오디세이 G6’은 27형 크기로 QHD(2,560x1,440) 해상도와 600Hz 고주사율을 지원한다.

특히, 듀얼 모드로 초고주사율 전환 시 최대 1,000Hz 뛰어넘는 세계 최초 1,040Hz 게이밍 모니터(HD 화질 기준)로 게임 장르별로 맞춤 플레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부사장은 “CES 2026에서 세상에 없던 혁신 기술을 최초로 구현한 차세대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게이밍 업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지속 개발해 글로벌 모니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주사율 144Hz 이상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025년 3분기 금액 기준 18.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7년 연속 1위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또 OLED 게이밍 모니터의 경우 27.4% 점유율로 3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마트, 26일부터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이마트가 2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총 43일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행사 신용카드로 선물 세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5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 현대차그룹, 첫 여성 사장 승진…진은숙 ICT 담당

SW·IT 부문 인사 단행…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류석문

현대차그룹에서 첫 여성 사장이 탄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소프트웨어(SW)·정보기술(IT) 부문의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진 사장은 2022년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이후 글로벌 월 앤 통합,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등 그룹의 IT 혁신 전략을 주도해 왔다. 진 사장은 NHN CTO 등 ICT 산업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통해 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춰왔다. 현대차그룹의 IT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개발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도 앞장서 왔다.

진 사장은 향후 그룹 IT 시스템과 인프라 전반의 개발·운영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전환을 기속화하고, 미래 그룹 IT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도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사장은 올해 3월 현대차 최초로 여성 사내이사이자 IT 전문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이번 인사로 현대차 첫 여성 사장에 오르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SW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는 류석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내정했다.

류 대표는 2024년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한 이후 SW 플랫폼 사업부를 이끌며 IT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차량 소프트웨어 개



진은숙 사장

류석문 대표이사

발 등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류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 문화 혁신 및 우수 개발자 양성에도 힘써 왔으며, 앞으로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 차원의 소프트웨어 혁신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 주요 경력을 거치며 IT·모빌리티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오늘 8시간 전면 파업

사측 “임금 체계·격려금 비교…반목·불화 조장”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사측의 인사 관리 개정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기술직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임금·수당 체계, 상생 협력기여금(격려금)의 차별 지급,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왜곡된 동의 절차로 강행한 데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항의로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간 동안 첫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격려

금 지급과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기술직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차별해 왔다”며 “기술직 노동자는 생산량과 생산성 증가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참여율’이라는 이름으로 수치 평가만 강요받으며, 격려금과 직능수당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직은 4년 근속 후 대리 승진 시 월 40만원 인상되지만 기술직은 23년 이 걸려도 월 18만원 인상에 그친다”며 상생을 내건 격려금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제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무급제는 기술직과 일반직 모두에게 실질적인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 직무급 도입과 관련이 없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의 승진제도와 기술직의 직능급을 비교하면서 회사의 직종간 반복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기여금은 차별 지급이 아닌 생산 참여에 대한 보상 제도다”면서 “기술직은 주 40시간 외에 추가로 임업과 특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일반직은 연말 인사 평가에 따라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승기·송태영 기자 sky@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동산단2번로 178  
062) 940-8221 · FAX 062) 945-8415 / HP 010-3646-8311